

대학생의 기질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이 외현적·내재적 자기에 성향에 미치는 영향

홍 영 미

성 현 란*

동방심리상담·부모교육연구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 기질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지각된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들이 외현적 자기에와 내재적 자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대학생 934명이었다. 외현적 자기에 대해 기질의 영향을 통제한 후의 양육행동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외현적 자기에에는 과잉기대, 애정, 학대는 정적 영향을, 비밀관성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들 양육 요인들의 전체 설명량은 6.09%이었고 기질요인은 16.11%이었다. 내재적 자기에 대해 기질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다회귀분석 한 결과, 과잉기대와 비밀관성은 정적 영향을, 감독, 합리적 설명 그리고 학대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들 양육요인들의 전체 설명량은 4.31%이었고, 기질은 39.29%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해 두 종류의 자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의 하위요인과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외현적 자기에와 내재적 자기에 대한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에 관해 논의하고 제한점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양육행동, 기질, 외현적 자기에, 내재적 자기에

능력과 성공에 높은 가치를 두는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인정받아야 하며 스스로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긍정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지나친 과장과 능력의 과시,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의 지나친 인정의 갈구 등은 살아가는 데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며, 이는 정신병리적 성격 특성인 자기에(narcissism)로 발전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자기에에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정상인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성격특징 중 하나이다(Horton, Bleau, & Dwecki, 2006). 그러나 정신병리적 자기에에는 정상적 자존감과 구분되는데, 높은 야망과 사회적 인정

* 교신저자: 성현란, E-mail: hrsung@cu.ac.kr

을 요구하는 점은 공통적이거나 정신병리적 자기애는 타인을 이용하고, 타인과의 협동이 결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Wink, 1991).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와 내재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로 나뉘는데 이러한 구분은 이론적으로 제안되었고(Kernberg, 1975; Kohut, 1977), 보다 최근으로 오면서 경험적으로도 지지되고 있다(Fassati, Beauchain, Grazioli, Carretta, Cortinovis, & Maffei, 2005; Rathvon & Holmstrom, 1996; Wink, 1991).

외현적 자기애는 웅대하고 과장된 자기지각과 과시하려는 태도가 주된 특징이며 이러한 태도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하여 타인들로부터 찬사를 요구하고, 열등감, 우울, 소진감 등의 정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내재적 자기애는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쉽게 상처받는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며, 우울, 불안, 그리고 과민한 모습들이 드러난다. 그러나 무의식에 내재하여 잘 드러나지는 않으나, 거대자기 환상과 타인들이 자신을 좋게 보아주기를 바라는 자기애적인 성격역동과 기제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자기애 성향의 원인 및 기제에 대하여 Freud(1915)를 비롯한 정신분석학적 개념화(Kernberg, 1975; Kohut, 1971)와 사회학습적 개념화(Millon, 1981)에 의해 부모의 양육방식에 관해 주장되었다. Kernberg(1975)는 초기 아동기 시절에 부모가 과잉기대를 하고 아동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으면서 동시에 자녀에게 공감하기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대리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차갑고 냉정하게 다루는 경우에 자기를 병리적으로 조직화함으로써 자기애가 발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부모에 의해 자녀는 세상에 대한 불신감을 형성하여 자신에게만 신뢰감이 주어지게 되어 자기애성 성격 특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Kohut(1971)는 부모가 아동을 너무 애정적이고 허용적으로 대하여 유아기에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대 자기상이나 이상적 자기상이 적절한 좌절의 부족으로 감소하지 않게 되어 결국 자기애가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동시에 과도한 통제와 조잡되어 자녀의 독립성을 저해하게 되고 불건강한 자기애가 발달한다고 하였다. Millon(1981)도 아동기 초기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애정과 비현실적 강화를 주는 것에서 발달되어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특별대우를 원하게 되고 거대한 자기상을 가지는 자기애를 초래한다고 한 점에서 Kohut(1974)와 유사점이 보인다.

자기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경험적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자기애에 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외현적 자기애에 관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그동안의 연구들에서는 DSM-IV에 제시된 외현적 자기애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왔다. 최근 국외의 연구에서는 자기애의 기술적 특징에 관한 연구(Raskin, 1980; Watson & Biderman, 1993), 자기애적 성격과 대인관계 연구(Carroll, Hoenigmann-Stovall, King, Wienhold & Whitehead, 1998), 자기애적 성격의 측정도구에 관한 연구(Hendin & Cheek, 1997; Wink & Gough, 1990), 국내 연구로서 자기애와 관련한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한수정, 권석만, 2010)와 더불어 자기애의 측정도구개발 관련 연구들(강선희, 정남운, 2002; 심상홍, 이장한, 2012; 정남운, 2001)이 증가하고 있다.

양육행동과 자기애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Watson, Little와 Biderman(1992)은 자기애를 건강한 자기애와 불건강한 자기애로 나누어서 연구하였는데, 허용적 양육은 착취/권한과 같은 불건강한 측면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권위 있는(authoritative) 양육은 불건강한 측면과 부적 상

관이 있었다(Watson, et al., 1992). 또한 허용적 양육과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양육 모두는 정신병리적 자기에와 정적 상관관이 있었다(O'Brien, 1987). Horton 등(2006)의 연구에서는 자기에에서 자존감 부분을 통제 한 후에 양육방식과 자기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부모의 애정이 건강한 자기에(지도력/권위, 우월성/거만함, 자기몰입/자기예찬)와 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불건강한 자기에(착취성/특권의식)에 대해서도 정적 영향을 미쳤다. 감독 요인은 건강한 자기에와 불건강한 자기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심리적 통제(심리적 조종을 의미함)요인은 불건강한 자기에에 대해서만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자기를 외현적 자기에와 내재적 자기에로 나누어 양육방식과 관련시킨 연구들은 많지 않다. 우선 외현적 자기에를 연구한 결과에서 자기에는 양육태도 및 A유형 성격과 관계된다는 Fukunishi, Nakagawa, Nakamura, Hua와 Kratz(1996)는 자기에, A유형, 그리고 어머니와의 밀접성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중국 대학생, 미국 대학생, 그리고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중국 학생들이 제일 강한 A유형 행동과 자기애적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부모 양육태도에서 통제적인 부모의 과잉보호 점수가 가장 높았고 어머니의 보살핌에서 가장 낮았으므로 애정이 없으면서 통제가 높은 환경에서 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계령(1997)은 부모의 애정과 통제태도가 높은 집단에서 외현적 자기에의 성향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고, 마혜정(2004)은 애정과 성취적 태도가 외현적 자기에 성향과 정적 상관관이 있음을 보고했다. 김하경(2008)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애정이 더 높을수록 자기에가 높아진다는 결과와 함께 긍정적 자기에(리더십/권위, 자기칭찬)와 부정적 자기에(우월성/자만, 특권의식)가

함께 높아짐을 밝히고 있다.

내재적 자기에와 양육에 관한 연구는 드문데, 윤혜신(2003)의 연구에서는 내재적 자기에는 적대적, 통제적, 비성취적, 비합리적 양육태도와 정적 상관관이 있었다. 한편 전아영(2006)은 부모의 양육태도 중 비합리적이고 성취를 강조할수록 자녀의 내재적 자기에가 발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Horton 등(2006)은 자존감의 효과를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애정적 양육은 건강한 외현적 자기에에 정적 예언을 하였으나 감독과 심리적 통제는 유의한 예언을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또한 애정은 불건강한 외현적 자기에에도 정적 예언을 하였고, 감독은 부정 예언을 하였으며 심리적 통제는 유의하게 예언하지 않았다. 반대로 애정이 부족할수록 외현적 자기에를 높인다는 결과(Fukunishi, et al., 1996)도 있다. 또 통제적 태도는 내재적 자기에와도 정적 상관관이 있을 뿐 아니라 외현적 자기에와도 정적 상관관이 있었다(윤혜신, 2003).

이와 같이 자기에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밝히기 위해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련하여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외현적 자기에에 대한 양육의 영향도 일관성을 파악하기 힘들 뿐 아니라, 내재적 자기에에 대한 양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편이다. 특히 외현적 자기에와 내재적 자기에에 영향 미치는 양육요인을 동시에 검토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인간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기질(temperament)을 고려할 수 있는데, Cloninger, Svrakic와 Przybeck(1994)는 기질이란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성향으로 다분히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이며 일생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을 보이고, 인성발달의 기본틀이 된다고 하였다. Goldsmith(1987)는 기질은

정서적 반응의 질과 정도에 있어 출생 직후부터 나타나는 개인차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의 하나로 기질을 들고 있고, Buss와 Plomin(1984)은 기질을 생애초기에 나타나는 선천적인 특성으로 후기의 인성으로 지속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기질과 문제행동 관련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질과 가정환경, 스트레스 및 자기상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한창환(2001)은 여학생의 경우 기질이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Caspi와 Silva(1995)는 초기 아동기 기질이 이후 성인기의 정신병리와 관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부적응 기질의 경우 이후에 외현화 문제보다는 불안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통제에 대해 저항하는 기질적 특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ates와 Bayles(1988)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 후의 내면화 문제 혹은 외현화 문제를 모두 예측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 기초해서 부적응 행동에 기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기질은 내·외적인 심리적 문제와 관련이 큰 자기애적 성격과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기질과 자기애간의 연관성을 검토한 연구들은 별로 없으나, Cramer(2011)의 결과에서 3세 때의 주의 끌기, 활동성, 연구적 경향, 대인적대감, 충동성과 같은 기질은 권위주의적 양육과 결합되면 23세 때가 되었을 때의 부정적 자기애(고집셈)를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개인이 가지는 기질적 측면이 자기애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양육방식이 두 종류의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으나 아직 하위요인들의 영향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양육방식의 다양한

하위변인이 외현적 자기애와 내재적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은 학문적 의미가 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양육방식이 대학생의 외현적 자기애와 내재적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 자기애에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기질의 영향을 통제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외현적 자기애와 내재적 자기애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그 특징에 차이가 있고, 두 종류의 자기애 간의 상관도 낮은 편이어서 양육방식의 하위요인들이 두 종류의 자기애를 예언하는 방향이나 크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질의 세 하위요인의 영향을 미리 통제하였을 때의 양육방식이 외현적 및 내재적 자기애에 대한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양육방식과 자기애 간의 관련성을 더 명확히 밝혀보고자 한다.

방 법

대상

본 연구는 부산, 대구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967명을 조사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33부를 제외한 934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남자 336명(36%), 여자 598명(64%)이며 평균연령은 20.46세이다. 연령의 범위는 17세에서 29세까지이었으며, 남자의 평균연령은 21.40세, 여자의 평균연령은 19.93세이었다.

외현적 자기애 척도

Raskin과 Hall(1979)이 DSM-III의 자기애적 성

격장에 진단준거에 근거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에 측정도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이다. 그 후 Raskin과 Terry(1988)는 주성분 분석을 거쳐 54문항을 40문항으로 단축하여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남운(2001)이 Raskin과 Terry(1988)의 척도를 공통요인분석을 통해 40문항을 32문항으로 단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에 성향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본 척도는 지도력/권위, 우월성/거만함, 자기몰입/자기예찬, 착취성/특권의식 등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남운(2001)은 단축된 검사가 .85의 내적 합치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의 내적 합치도를 보여주었다.

내재적 자기에 척도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적절한 문항을 빌려오거나 새로운 문항을 개발해서 보완하여 완성한 설문지(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모두 4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표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 등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적 자기에의 성격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90의 내적 합치도를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91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 이하 동일)를 보여주었다.

양육행동 척도

허묘연(2004)이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모양육행동 척도들의 문제(신뢰도 및 타당도)를 보완할 뿐 아니라 임상장면에서 유용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척도를 개발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덟 개의 하위요인인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 애정 등이다. 이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서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부의 경우 .67~.87, 모의 경우 .65~.84이었다.

기질 척도

성인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Buss와 Plomin(1984)의 성인 EAS 기질 조사(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Adult EA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민희(1998)가 사용하였던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성향이 강함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의 기질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56~.79이었다.

결 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및 기질과 외현적·내재적 자기에 성향과의 관계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 및 기질과 외현적·내재적 자기에 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Pearson 적률상관 분석의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표 1.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및 기질의 요인과 외현적·내재적 자기에 성향과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감독													
2.합리적설명	.47**												
3.비일관성	-.18**	-.30**											
4.과잉기대	.01	.03	.30**										
5.과잉간섭	-.05	-.13**	.45**	.48**									
6.학대	-.18**	-.08*	.50**	.31**	.42**								
7.방임	-.39**	-.35**	.51**	.22**	.30**	.60**							
8.애정	.51**	.58**	-.39**	-.08*	-.24**	-.37**	-.59**						
9.정서성	-.11**	-.17**	.27**	.09**	.19**	.18**	.20**	-.15**					
10.사회성	.07*	.17**	-.12**	-.03	-.09**	-.13**	-.18**	.21**	-.31**				
11.활동성	-.05	.08*	.07*	.07*	.03	.08*	.02	.10**	.35**	.22**			
12.외현적자기애	.07*	.15**	-.04	.19**	.02	.08*	-.03	.19**	.00	.24**	.36**		
13.내재적자기애	-.20**	-.25**	.29**	.15**	.23**	.14**	.24**	-.23**	.60**	-.34**	.10**	-.08*	
<i>M</i>	2.70	2.60	2.03	2.30	2.19	1.51	1.68	3.00	3.17	3.50	3.39	3.20	2.83
<i>SD</i>	0.62	0.47	0.53	0.61	0.57	0.53	0.53	0.56	0.65	0.65	0.67	0.51	0.44

* $p < .05$, ** $p < .01$, *** $p < .001$, 이하 표에서 동일.

있다. 본 연구에서 부와 모의 양육행동을 모두 측정하였으나 예비분석을 통해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타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같았으므로 각 하위요인별로 부와 모의 점수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부와 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현적 자기애는 부모양육행동 중에서 부정적 하위요인(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은 정서성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고, 과잉기대를 제외한 부정적 양육 하위요인은 사회성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양육의 긍정적 하위요인(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은 기질의 하위요인인 정서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고, 사회성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감독을 제외한 긍정적 양육 요인은 활동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내재적 자기애와 부모양육행동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보면, 긍정적 양육하위요인은 내재적 자기애와 부적 상관이 있었고, 부

정적 양육하위요인은 내재적 자기애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기질의 사회성과 활동성은 외현적 자기애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정서성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정서성과 활동성은 내재적 자기애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사회성은 내재적 자기애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표 2. 부와 모의 양육행동 하위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양육행동	부		모	
	<i>M</i>	<i>SD</i>	<i>M</i>	<i>SD</i>
감독	2.48	.72	2.92	.66
합리적설명	2.53	.54	2.65	.49
비일관성	2.01	.60	2.05	.58
과잉기대	2.29	.68	2.33	.63
과잉간섭	2.11	.63	2.26	.63
학대	1.53	.62	1.50	.54
방임	1.77	.61	1.58	.53
애정	2.86	.65	3.09	.58

끝으로 외현적 자기에와 내재적 자기에간의 상관은 유의하였으나 매우 낮은 역상관(-.08)이 있을 뿐이었다.

기질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이 외현적 자기에 성향에 미치는 영향

기질 요인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이 외현적 자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표준 및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세 개의 기질요인의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양육태도가 외현적 자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므로, 세 개의 기질 요인을 모두 회귀모형에 먼저 강제로 포함시킨 후, 8개의 양육행동요인에 대해서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육행동에 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각 변인의 R2과 누적 R2로 제시되어 있다. 3개의 기질요인의 표준회귀분석의 결과와,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증분적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4개의 양육행동요인(과잉기대, 애정, 학대, 비밀관성)을 독립변인으로 한 표준회귀분석 결과는 회귀계수(b), 표준화된 회귀계수(β), t와 그 확률값(p)으로 제시되

표 3.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이 외현적 자기에 성향에 미치는 영향

예언변인	B	β	R ²	누적R ²	t
절편	2.06				
외현적					
활동성	.27	.35	.126	.126	9.94***
사회성	.12	.15	.031	.157	4.41***
정서성	-.06	-.07	.004	.161	-2.08*
자기에					
과잉기대	.15	.18	.033	.190	5.54***
애정	.15	.17	.020	.211	4.86***
학대	.12	.13	.007	.218	3.50***
비밀관성	-.08	-.09	.004	.222	-2.31*

어 있다.

기질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8개의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 요인 중 외현적 자기에에 유의하게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과잉기대, 애정, 학대, 비밀관성 4개 요인이었으며, 이들 4개 변인의 증분적 설명력은 6.09%이었다. 과잉기대(β=.18), 애정(β=.17) 및 학대(β=.13) 3개요인은 외현적 자기에에 정적 영향을, 비밀관성 요인(β=-.09)은 외현적 자기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적 자기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3개의 기질 요인 모두가 외현적 자기에에 미치는 설명력은 16.11%이었으며 세변인 각각의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활동성(β=.35)과 사회성(β=.15)은 외현적 자기에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정서성 요인(β=-.07)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

기질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이 내재적 자기에 성향에 미치는 영향

기질 요인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의 하위요

표 4. 기질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 내재적 자기에 성향에 미치는 영향

예언변인	B	β	R ²	누적R ²	t
절편	2.09				
내재적					
정서성	.39	.58	.3634	.3634	18.92***
사회성	-.10	-.15	.0260	.3894	-4.91***
활동성	-.04	-.07	.0034	.3929	-2.24*
자기에					
감독	-.07	-.10	.0170	.4115	-3.45***
과잉기대	.07	.10	.0111	.4226	3.54***
합리적 설명	-.06	-.07	.0066	.4292	-2.13*
비밀관성	.08	.10	.0035	.4327	3.15**
학대	-.06	.07	.0032	.4360	-2.33*

인이 내재적 자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표준 및 단계적 회귀분석)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제시된 통계치의 산출과정은 표 3의 과정과 같다.

기질요인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8개의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 요인 중 내재적 자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감독($\beta=-.10$), 과잉기대($\beta=.10$), 합리적 설명($\beta=-.07$), 비일관성($\beta=.10$), 학대($\beta=-.07$)의 5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5개 변인의 설명력은 4.31%이었다. 과잉기대, 비일관성의 2개 요인은 내재적 자기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감독, 합리적 설명 및 학대의 3개 요인은 내재적 자기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3개의 기질 요인 모두가 내재적 자기에 미치는 설명력은 39.29%로 나타났으며 세 변인 각각의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성 요인($\beta=.58$)은 내재적 자기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사회성($\beta=-.15$)과 활동성 요인($\beta=-.07$)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

논 의

본 연구에서 대학생에 있어서 기질의 영향을 통제된 후에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들이 외현적·내재적 자기에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부모양육행동이 외현적 자기와 내재적 자기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서 논의한 다음 종합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부모양육행동이 외현적 자기에 미치는 영향

기질의 세 하위요인의 영향을 통제된 후의 부모

양육행동이 외현적 자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6.09%이었다. 양육행동 하위요인 중 과잉기대, 애정, 학대는 정적 영향을 미쳤고, 비일관성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 양육요인인 애정뿐만 아니라 부정적 양육요인인 과잉기대와 학대도 그것이 높을수록 외현적 자기에 성향을 높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비일관성은 높을수록 외현적 자기에 성향을 낮추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양육행동의 요인 중 외현적 자기에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과잉기대이었다.

애정이 외현적 자기에 성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Horton 등(2006)의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를 건강한 자기와 불건강한 자기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애정이 두 자기에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친 것과 일관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애정이 외현적 자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허용적으로 양육함으로써 유아기의 거대자기상과 특권의식이 적절하게 감소되지 못하여 자기가 형성된다는 주장(Kohut, 1971; Millon, 1981)을 지지한다고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애정 이외에 과잉기대, 학대가 외현적 자기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자녀의 능력에 적절하지 않게 높은 기대를 하거나, 학대를 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세상을 불신하게 하는 대신 자신을 과도하게 신뢰하게 하여 자기를 증가시키게 한다는 주장(Kernberg, 1975)을 지지한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감독이 외현적 자기에의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는 Horton 등(2006)의 대학생에 있어서 건강한 자기와 불건강한 자기에 모두(둘을 합치면 외현적 자기가 됨)에 대해 유의한 영향이 없었던 결과와 일치한다. 단, 비일관성이 높을수록 외현적 자기는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비일관성은 부정적 양육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인이 높으면 외현적 자기가 낮아지게 되는 것은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긍정적 양육 및 부정적 양육과의 조합을 통해 외현적 자기에 영향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더 구체적인 해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부모양육행동이 내재적 자기에 성향에 미치는 영향

기질의 세 하위요인의 영향을 통제된 후에 부모양육행동이 내재적 자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4.31%이었다. 부모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과잉기대와 비일관성은 정적 영향을 미쳤고, 감독, 합리적 설명 그리고 학대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내재적 자기에 성향은 대체로 부정적 성격특성으로 간주되므로 적절한 부모의 감독과 합리적 설명이 이루어질 때 내재적 자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감독은 외현적 자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높은 감독은 내재적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보아 높은 감독이 높은 애정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거대자기상이나 과도한 자기신뢰감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대가 높을수록 내재적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은 흥미롭다. 즉 학대를 많이 하면 외현적 자기는 높아지지만 반대로 내재적 자기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활동적 기질에 애정과 학대가 조합되면 외현적 자기를 증가시키나, 내재적 자기의 경우에는 높은 정서성과 낮은 애정이 결합되는 가정환경에서 거대자기상과 과도한 자기신뢰감을 낮추게 되어 내재적 자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총 합

본 연구에서 과잉기대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뿐 아니라 내재적 자기에 성향도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자녀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성취를 부모가 요구하는 과잉기대는 자녀의 긍정적 성격발달을 저해하여 외현적 자기에 성향뿐만 아니라 내재적 자기에 성향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학대와 비일관성은 두 종류의 자기에 모두에 영향력이 있으나 방향이 반대이었다. 즉 학대가 높으면 외현적 자기에 높아지나 내재적 자기에 낮아지고, 비일관성이 높으면 외현적 자기에 낮아지나 내재적 자기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마도 학대가 애정과 결합하거나 높은 활동성과 결합하면 외현적 자기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학대가 높을수록 내재적 자기에 낮아졌는데 높은 학대가 높은 감독이나 높은 정서성과 결합하면 내재적 자기를 낮출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외현적 자기에 유의한 영향이 있으나 내재적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요인은 애정이었고, 내재적 자기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나 외현적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요인은 감독과 합리적 설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애정이 외현적 자기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타 연구(Horton, 2006)에서도 지지되지만, 내재적 자기에 대해서는 애정의 영향이 없다고 한 결과(전아영, 2005)들과도 일관성이 있다. 따라서 애정은 내재적 자기에보다 외현적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을 너무 애정적이고 허용적으로 대하면 자기가 증가된다고 한 Kohut(1971)의 개념화는 주로 외현적 자기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과잉기대

를 하면서 냉정하게 다루는 것이 자기애를 발달하게 한다고 주장한 Kernberg (1975)의 개념화는 주로 내재적 자기애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내재적 자기애는 애정에 의해 과대자기가 형성되었다기보다 부모의 비일관성과 과잉기대로 인한 심리적 곤란에 의해 자기보호를 위한 반작용으로 거대자기 환상을 가지게 되고, 동시에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고 타인의 비판에 민감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바로 Kernberg(1975)의 개념화와 일관된다.

기질의 세 하위요인이 외현적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력은 양육행동의 영향력에 비해 훨씬 컸다. 세 기질 중에서 활동성의 영향력이 가장 컸는데, 외현적 자기애는 타인과의 협동이 부족하지만 자신이 찬양받기 원하고 자기특권을 추구하는 특징으로 인해 사회성이 정서성보다 활동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질의 세 하위요인이 내재적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력은 39.29%로 양육행동의 영향력에 비해 훨씬 컸을 뿐 아니라 외현적 자기애에 대한 영향력에 비해서도 훨씬 컸다. 세 기질 중에서 정서성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그 뒤를 사회성과 활동성이 이었는데, 이는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정반대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내재적 자기애는 거대자기환상과 타인이 찬양해주기를 바라는 욕구도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지만 우울, 과민, 그리고 불안한 성격 특징을 지니는 것이 특징인만큼 정서성이 사회성이나 활동성보다 내재적 자기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외현적 자기애와 내재적 자기애에 대한 양육행동의 영향에 관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 째 외현적 자기애는 애정적 양육이 높을수록 발달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외에 과잉기대, 학대와 같은 부정적 양육요인도 외현적 자기애를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셋 째 내재적 자기애에 대해서는 과잉기대와 비일관성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에 의해 증가되며, 감독과 합리적 설명과 같은 긍정적 양육요인에 의해서는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애정이 결합되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학대가 높으면 오히려 내재적 자기애는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기질이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도 부가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기질의 설명력이 양육행동의 영향력보다 훨씬 컸고, 외현적 자기애보다 내재적 자기애에 대한 설명력이 훨씬 컸다. 또한 외현적 자기애와 내재적 자기애의 성향은 정반대의 기질과 연관성이 있었으며, 외현적 자기애에는 활동성 기질이, 내재적 자기애에는 정서성 기질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애정 차원이 자기애를 예언함에 있어 Kerberg(1975)와 Kohut(1971)의 상반된 개념화를 통합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인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 기질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양육행동의 다양한 하위요인이 외현적 자기애와 내재적 자기애에 상이하게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외현적 자기애와 내재적 자기애의 형성 기제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부가적으로 기질이 외현적 자기애와 내재적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력이 양육행동의 영향력보다 크다는 것을 밝혔는데, 기질이 자기애의 형성 요인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하며, 두 종류의 자기애에 영향 미치는 하위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두 종류의 자기애의 형성과정의 이해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의 8가지의 하위요인을 다루었기 때문에 외현적 자기애와 내재적 자기애에 미치는 이들 하위요인의 다양한 차이점을 체계화된

방향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양육이 자기에 미치는 영향과 기질의 영향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자기에 영향 미치는 과정에서 기질요인과 양육요인의 조절효과 또는 상호작용효과를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양육요인의 수를 핵심차원에 따라 더 단순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끝으로, 자기에 성향에 관한 연구들은 대학생과 성인에 관해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기에 성향은 어려서부터의 기질과 양육행동에 의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기질과 양육행동이 자기에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선희, 정남운(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김계령(1997). 자기에적 성격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하경(2008). 중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에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마혜정(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에.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2005). 외현적·내현적 자기에의 자기평가와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 심상홍, 이장한(2012). 자기에 성격장애 척도의 요인구조: 외현적 자기에 및 내현적 자기에와의 관련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2), 87-100.
- 윤혜신(2003). 자녀의 내현적 자기에 성격 성향 정도와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아영(2006).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에적 성격특성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남서울대학교 디지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남운(2001). 과민성 자기에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한수정, 권석만(2010). 자기에자의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지각적 민감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4), 1135-1143.
- 한창환(2001). 생물유전적 기질과 가정환경이 청소년기 우울, 품행장애 성향,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격, 자아상, 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묘연(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70-189
- Bates, J. E., & Bayles, K.(1988). The role of attachment in the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s. In J. Belsky & T. Nezworsky (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NY: Wiley.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 Carroll, L., Hoenigmann-Stovall, N., King, A., Wienhold, J., & Whitehead, G. I. (1998).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narcissistic

-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7(1), 38-49.
- Caspi, A., & Silva, P. A. (1995). Temperament qualities at age three predict personality traits in young adulthood: Longitudinal evidence from birth cohort. *Child Development*, 66, 486-498.
- Cloninger, C. R., Svrakic, D. M., & Przybeck, T. R. (1993).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 975-990.
- Cramer, P. (2011). Young adult narcissism: A 20 year longitudinal study of the contribution of parenting styles, preschool precursors of narcissism, and denia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 19-28.
- Fassati, A., Beauchaine, T. P., Grazioli, F., Carretta, I., Cortinovis, F., & Maffei, C. (2005). A latent structure analysis of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criteria. *Comprehensive Psychiatry*, 46, 361-367.
- Freud, S. (1915). *Instincts and their vicissitudes*. Standard Edition, 14, 117-140, London, Hogarth Press, 1957.
- Fukunishi, I., Nakagawa, T., Nakamura, H., Li, K., Hua, Z., & Kratz, T. S. (1996). Relationship between type A behavior, narcissism, and maternal closeness for college students in Jap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sychological Report*, 78, 939-944.
- Glodsmith, H. H. (1987). Roundtable; What is temperament? Four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8, 505-529.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ity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Horton, R. S., Bleau, G., & Drwecki, B. (2006). Parenting narcissism: What are the links between parenting and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74(2), 345-376.
- Kernberg, O.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Millon, T. (1981). *Disorders of personality*. New York: Wiley.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R. (1980). Narcissism and creativity: Are they related? *Psychological Reports*, 46, 55-60.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 66-80.
- Watson, P. J., & Biderman, M. D. (1993).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factors, splitting, and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1(1), 41-57.
- Watson, P. J., & Little, T., & Biderman, M. D. (1992). Narcissism and parenting styles. *Psychoanalytic Psychology*, 9(2), 231-244.
- Wink, P., & Gough, H. G. (1990). New narcissism scales for th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and MMPI.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3), 446-462.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 1차 원고 접수: 2012. 10. 15.
수정 원고 접수: 2012. 11. 26.
최종 게재 결정: 2012. 11. 27.

The influence of temperament and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on overt and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in college students

Young-Mi Hong

DongBang Institute of
Counseling & Parents education

Hyunran Sung **

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on overt and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after controlling of the effect of temperament in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were 934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of multi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On overt narcissistic tendency, high excessive expectation, high affection, high abuse and low inconsistency predicted high overt narcissistic tendency and explained 6.09% totally. Temperament explained overt narcissistic tendency 16.11%. High excessive expectation, high inconsistency and low monitoring, low reasonable explanation and low abuse predicted high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and explained 4.31% totally. Temperament explained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39.29%. The influence of subfactor among parenting behavior is differed on overt and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There was discussion of the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 on overt and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an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Keywords: parenting attitudes, temperament, overt narcissism, covert narcissism